<특별활동\_대면수업 대체과제\_5>

2013-12815 이동주

최근 코로나 사태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. 한국야구에 해외 팬들이 자주 유입되면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었던 문화가 '빠던'이라고 할 수 있다.

국제 스포츠 규정에 따라 프로 경기들은 대부분 범국가적인 룰을 공유하지만,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이기에 국가별로 자리잡은 스포츠 문화는 모습을 달리한다. 우리 나라에서 타자는 타구와 함께 반동을 그대로 이용하여 배트를 날려보낸 뒤 주루한다. 하지만, 미국에서 이러한 '배트 플립'은 투수를 향한 상당한 수준의 도발 행위로 불문율로써 규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외국 스포츠 팬들이 한국 야구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신선함은 그들의 스포츠 문화에서 불문율로써 통제되고 있던 배트 플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온 충격에서 발한다.

골프에서도 이와 같은 불문율이 존재한다. 온 그린 한 선수가 자신의 공의 옆에서 퍼팅을 준비할 때에, 공부터 홀 컵까지의 가상의 선을 통상적으로 '라인'이라고 부른다. 이 라인 위를 지나가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수의 퍼팅을 방해하기에 불문율로 통제된다.

테니스 경기에서 서브는 아주 큰 중요도 갖기에 서브를 준비하는 기간의 소음은 무례한 행위로 치부된다. 너무도 직관적이기에 강력한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, 그만큼 관중의 격을 쉬이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. 스포츠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직관적이라면 경기장을 찾은 팬으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할 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유치되었을 때, 테니스 경기장을 찾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중 문화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다.